



#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보험회사 수익성 악화

전용식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 요약

■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경기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금융시장 변수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보험회사 운용수익률은 하락하고 있음.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FY2010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과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보험산업 수익성은 과거 IMF,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악화될 우려가 있음. 보험회사들은 거시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전망이 확산되고 있음.

- 최근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의 3.5%에서 3% 혹은 그 이하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 보험연구원<sup>1)</sup>도 2012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전망치 3.5%보다 0.8%p 낮은 수준임.
  - 한국경제연구원은 3.5%에서 2.6%로, 현대경제연구원은 3.5%에서 2.8%로 하향조정
  - 노무라, JP모건 등 10개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평균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추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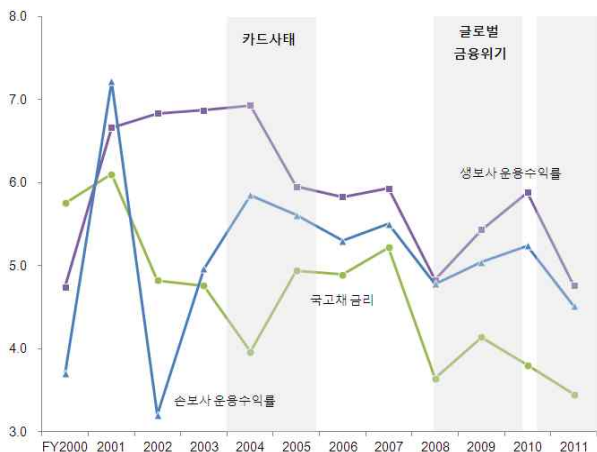
■ 경기하강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하는 금융시장 주요 변수(주가, 금리)가 약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기대가 보험회사 투자수익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생·손보 운용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2005년 카드사태 이후 보험산업의 운용수익률이 국채금리와 동조(co-movement)현상이 뚜렷해지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음.

1) 보험연구원(2012. 8),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CEO 리포트』.

- 특히 FY2011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은 4.8%로 FY2010 5.9%에 비해 1.1%p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5년 카드사태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임.

〈그림 1〉 국고채 금리와 보험산업 운용이익률



〈그림 2〉 생명보험 운용이익률의 전기 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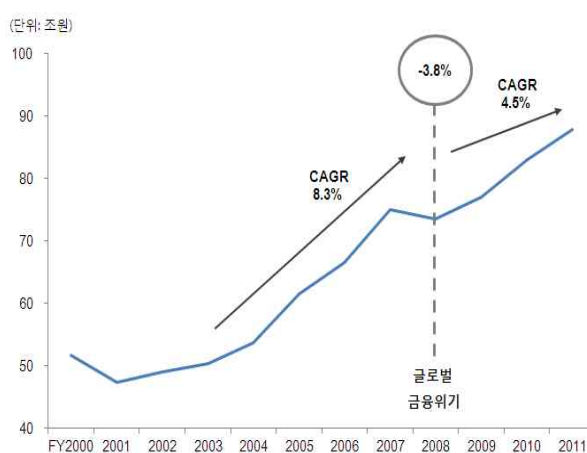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도 경제성장률 추세와 장기균형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수입보험료 증가세도 위축될 우려가 있음.

- FY201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87.8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5.8% 성장하였는데, FY2008년 - 2.0%의 감소세를 기록한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임.
-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FY20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4.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그림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그림 4〉 수입보험료 추이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FY2008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FY2011에는 16.7% 증가하며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FY2012 성장세는 이보다 더 둔화된 11.1%에 그칠 전망이다.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10.3%의 성장세를 보였음.
- FY2012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11.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과거 3년 평균 추세선을 하향 이탈하여 성장둔화가 지속될 우려

〈그림 5〉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 경제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국내 보험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유로존 재정위기 해소와 미국경제 회복이 선행되어야 국내 경기 회복세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경제 회복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
- 특히 보험회사 자산운용수익률 악화가 지속될 경우, 공시이율보다 운용자산이익률이 낮은 역마진이 지속되어 보험회사 수익성 악화에 큰 영향을 줄 것임.
- 가계부채 문제 등 국내 금융산업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어 보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영환경은 과거 IMF위기,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임.
- 보험산업은 사업·시스템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지속될 수 있는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해야 함. **kiri**